

코로나19 신규백신 65세 이상 접종률 30%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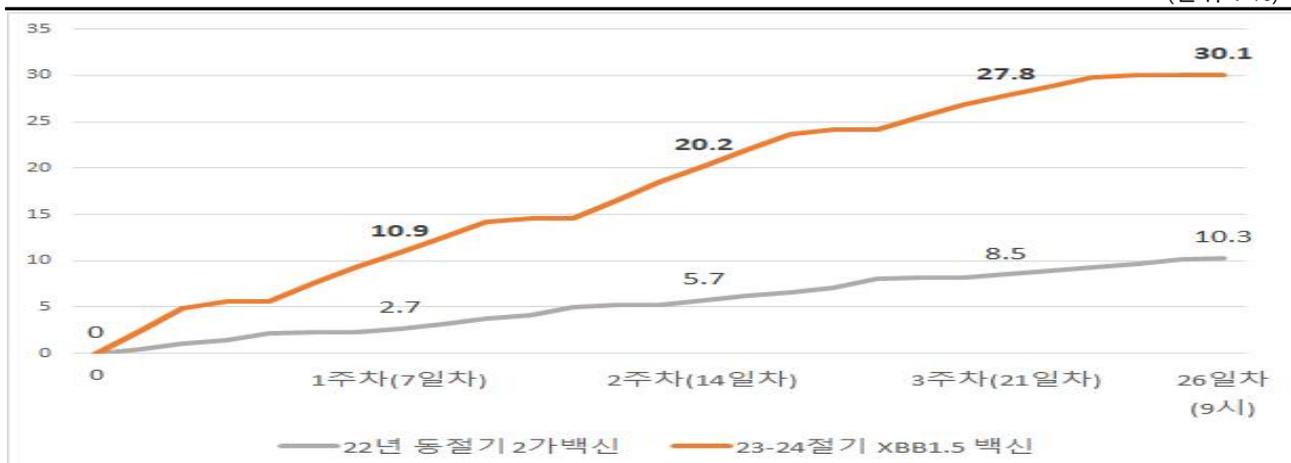
- 최근 국내 최초 병원기반 효과평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중증·사망 예방효과 확인
- 65세 이상은 중증·사망 위험이 높아, 겨울 유행에 앞서 11월 내 접종 필요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10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, 11월 13일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%를 넘어섰다고 밝혔다.

현재(접종 26일 차) 65세 이상의 누적 접종자는 2,943,293명이고, 누적 접종률은 30.1%로, 작년에는 66일 차(12월 15일)에 30%를 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작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【'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'23-'24절기 접종률 비교(65세 이상)】

(단위 : %)



다만,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(8,578명)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8.5%(2,446명, 11월 1주 기준)이며, 이 같은 비중이 9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연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, 중증·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겨울철 유행에 앞서 서둘러 백신접종하실 것을 당부하였다.

* 65세 이상 양성자 비중(%): (9.1주) 22.8 → (9.2주) 23.9 → (9.3주) 25.8 → (9.4주) 29.0 → (10.1주) 28.0 → (10.2주) 29.0 → (10.3주) 28.9 → (10.4주) 29.5 → (11.1주) 28.5

한편,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로 수행한 병원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효과평가 연구 중간결과(책임자 : 최준용 교수팀, 연세대)를 통해,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높은 중증·사망 예방효과를 발표하였다.

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*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('22.12.1.~'23.5.31.)를 시행한 10,102명의 예방접종력, 입원, 치료기간을 분석(1차)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를 평가하였다.

* 세브란스병원, 충북대학교병원, 경북대학교병원, 전남대학교병원

65세 이상의 접종 후 5-6개월 시점에서의 백신 효과를 보면, '22년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의 1/8수준(12.4%)으로서 접종을 통해 입원 위험이 크게 낮아졌으며, 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의 1/5수준(21.7%)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증·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겨울 이전에 백신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구축된 병원 기반의 백신 효과평가 체계를 토대로 보다 정확하게 국내의 백신 효과를 평가하고, 앞으로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여 접종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.

*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 예정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그간 국외 연구결과로 알려졌던 코로나19 백신의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만큼, 65세 이상 어르신, 면역저하자,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.”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권근용 (043-913-2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리 (043-913-2309)
		담당자	연구관	신지연 (043-913-2362)
		담당자	연구사	정행진 (043-913-2361)